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가 경험하는 갈등의 유형과 특성 분석

Open Adoption : Analysis of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Experienced by Adoptive Parents

구미향(Mee-Hyang Koo)¹⁾

ABSTRACT

Twenty-one adoptive par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on adoption-related conflicts perceived by adoptive parents in open adoption. Q-methodology, which provides understanding of individual attitudes and experiences, identified three types of conflict. Type 1 experienced a great deal of conflict and concern prior to the adoption decision; they also faced difficulties stemming from lack of information about parenting an adopted child and institutional inertia. For type 2, the major factors of conflict were discord among siblings, negative bias against adoption in the community, and insufficient national assistance. Type 3 reported that they feel concerned for their adopted-child's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y worried that adoption status might lead to behavioral and attitudinal problems in their adopted-child during youth and young adulthood.

Key Words : 입양(adoption), 갈등(conflict), Q-방법론(Q-methodology).

I. 서 론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정순란, 2005; Sharkey, 1998).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와는 달리 입양가정은 아동과 입양 부모, 그리고 생물학적 부모가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인 유대를 맺는 비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입양가정에는 전통적인 가정과 구별되는 독특한 도전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와 갈등의 요소 또한 존재한다(O'Brien & Zamostny, 2003).

역사적으로 입양정책은 수많은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 왔다. 처음에는 아동의 타고난 정체성은 유지한 채 공개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곤 하였으나, 생

¹⁾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ee-Hyang Ko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506-714, Korea
E-mail : viakoo@hanmail.net

부모와 입양아를 불합리한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밀입양의 전통이 수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선택과 공개, 그리고 아동의 알 권리에 초점을 둔 공개입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Sullivan & Lathrop,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입양정책의 변화기에 국내의 공개입양가정이 경험하는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먼저 국내입양의 역사와 형태, 그리고 입양가정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양가정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중의 하나지만, 그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사와 혈육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양자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친족중심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은 아동복지적 측면보다는 가계를 계승하는 의미로 여겨져 왔다(유규용, 2002; Kim, 1993).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활성화된 배경은 전쟁으로 급격히 증가한 고아와 혼혈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입양 정책을 정비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미혼모, 기아, 결손가정 아동의 증가에 따라 해외입양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국제올림픽은 한국의 문화와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아기 수출국”으로서의 오명도 안겨주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국내입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유규용, 2002; Kim, 1993).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내입양의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대를 넘지 못하는 현실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은 입양의 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의 결여, 뿌리 깊은 혈연의식, 사회적

편견, 정부의 홍보 및 지원부족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서경숙, 2003; 윤현선, 2001; 이경안, 2003; 정순란, 2005).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입양가정의 모습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입양관련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권지성, 2003). 왜냐하면 지금까지 친생부모나 입양부모의 요청에 따라 입양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비밀입양의 성행이 국내 입양제도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고, 입양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였기 때문이다(배태순, 2000; 정순란, 2005). Sullivan과 Lathrop(2004)은 아동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생부모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입양부모 역시 불임으로 인한 슬픔을 억압해야하는 비밀입양의 체제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공개입양은 입양인의 근원과 혈통에 대해 알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부모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하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개입양은 친생가족과 입양가족간의 출산 전 정보의 교환에서부터 지속적인 의사소통, 심지어는 정기적인 방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Bordo, 2005; Chisholm, 1997). 현재 입양이 보편적 현상이 된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입양은 아동의 피부색, 신체적 특징, 종교, 지적 잠재력 등을 입양가정의 특성과 유사하게 맞추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입양가능한 아동의 수는 줄고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인종입양(transracial adoptions)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개입양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추천되었다(Chisholm, 1997; Frasc & Brooks, 2003; Kim, 1993; Miles, 1999).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입양부

모가 될 수 있는 독일의 경우도 입양과정에 친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완전공개입양제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긴다(미디어다음, 2004).

한편 입양을 하게 되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공개입양을 하겠다고 밝힌 서경숙(2003)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국내에서 공개입양의 개념은 원래의 뜻과 달리 매우 소극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개입양에 관한 인식의 변화 또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에서 공개입양이라는 용어는 외국과 같은 완전개방형의 공개입양이 아니라 단순히 입양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에서 이러한 공개입양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 입양인구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란, 2005; 현태옥, 2004).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일각에서 공개입양이 바람직하며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공개입양 가정이 겪는 심리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즉 부부중심이 아닌 가족중심의 전통적인 가정문화에서 입양과 관련된 결정은 친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공개입양가정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입양 부모가 생부모의 존재사실을 부모로서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입양가정의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권지성, 2003; 배태순, 2000; 현태옥, 2004).

Frasch와 Brooks(2003)는 입양가정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입양 시 아이의 연령, 입양아의 행동문제, 입양에 대한 가족 간 의사소통, 입양가정과 생가정간의 개방성의 수준, 그리고 입양에 대한 확대가족과 지역사회 태도 등을 들었다. 선행연구 결과 양어머니의 양육기간

이 길수록 입양아의 애착안정성이 높고(한동수, 2001; O'Brien & Zamostny, 2003), 장애나 의료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입양을 꺼리거나, 장애아 입양 시 입양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서경숙, 2003; 정맹진, 2002; 최진희, 2003; O'Brien & Zamostny, 2003). 반면 친부모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입양가정 내에서 입양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였던 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선, 2001; O'Brien & Zamostny, 2003). 또한 연구자들은 입양가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갖는 것이 입양가정의 적응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도 밝혔다(권지성, 2003; 윤현선, 2001).

입양가정의 적응은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생애적 관점에서 입양가정의 생활주기(adoptive family life)에 따른 발달과업의 수행과 연계된 이슈이다. 따라서 입양가정이 위치한 발달의 단계와 수행해야 할 과업을 이해하고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입양가정을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자원과 복원력을 밝히려는 노력과 더불어 입양가정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갈등의 원천을 파악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Frasch & Brooks, 2003; O'Brien & Zamostny, 2003). Frasch와 Brooks(2003)는 입양가정에서 입양아와 입양부모가 갖는 독특한 도전과 과업에 대해 Brodzinsky 등(1987, 1992)이 제안한 모델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입양가정의 생활주기과업은 입양 전부터 영아기, 걸음마기와 학령전기, 아동중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입양아의 연령주기에 따라 다르게 기술된다. 즉 입양 전기는 불임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입양을 결정한 후 사회적 편견에 대처해야 하며, 영아기의 입양부모는 부모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입양아가 걸음

마기와 학령전기에 도달하면 자녀와 부모는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따른 불안에 대처해야한다. 아동이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성숙하는 아동중기의 발달과업은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상실감과 입양관련 낙인을 다루고 자녀가 발달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입양부모는 자녀의 정체성 발달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이와 같이 발달주기별로 입양가정의 과업과 갈등요소를 예측하는 모델은 입양가정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공개입양 가정의 수가 적고 입양아의 연령이 대개 영아기부터 학령전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외국의 경우처럼 전생애적 관점에서 공개입양가정의 적응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입양가정이 다루어야하는 도전과 과업은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가정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의 특수성 또한 포함하므로(O'Brien & Zamostny, 2003), 최근에는 공개입양이 공론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외국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입양의 역사에 비해 입양관련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척박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가 지각하는 갈등의 유형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개입양 가정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개입양가정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개입양 가정 부모가 지각하는 갈등의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가 지각

하는 갈등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 표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 표본 이론에 근거한 주관성 측정법인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 방법론은 소수의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적 의견과 경험, 느낌 등을 기술하고 스스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유형화된 개인의 특성을 심층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김홍규, 1990). 현재 Q 방법론은 정치, 경제, 언론, 심리, 아동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인간 개인의 특성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TV광고, 드라마(김정훈, 1997; 김준희, 1998), 직업가치관(김윤숙·김분한, 2004), 환자가족의 태도(임영순, 2004), 이미지나 신체상(장정미, 1997; 오진환·김분한, 2004), 삶의 질(신혜숙, 1997), 죽음(윤은자, 1998), 심리적응과 애착행위(구미향, 2002; 임여진, 2004) 등에서 인간 경험의 주관적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통해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의 요인에 대해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가 보이는 반응에서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공개입양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내 공개입양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측정하고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방법론이다. 연구대상의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1. Q-표본(Q-sample)

Q-표본은 입양부모가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문항의 전집(Q-population)으로부터 선별된 문항의 집합체이다. Q-표본을 완성하기 위해 입양에 관한 전문서적과 보도자료, 입양부모의 수기 등을 고찰하고, 입양기관 운영자 4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입양부모 8인과 교수, 입양기관 전문가 2인이 참여한 토론 자료를 기초로 총 312개의 문항 전집을 수집하였다. 이들 문항 중 중복되거나 의미가 모호한 문항들을 삭제하고 문헌고찰과 면담 및 토론자료 등에서 입양과 관련한 주요영역으로 드러난 입양에 대한 부모의 태도, 아동의 특성, 가정생활, 사회

적 인식과 반응, 입양정책 및 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문항들을 추출하여 총 40개의 Q-표본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연구대상(P-sample)

연구대상은 입양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양 가정을 위한 Workshop에 참여한 총 21명의 공개 입양 부모였다. 공개입양이라 함은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의미로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을 말한다. 연구대상의 대다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였으며 57%가 여자였고 부부가 함께 조사에 응한 경우는 7쌍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71%가 친자가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요인가중치

유형	ID	요인 가중치	연령	성별	종교 유무	학력	친자 유무	입양자녀 성별(연령)	입양당시 자녀월령	향후 입양계획
1 (N=6)	03	1.93	46-55세	남자	있음	대졸	없음	남자(2세)	24개월	있음
	06	1.54	36-45세	남자	-	대졸	있음	여자(2, 5세)	5, 12개월	있음
	21	1.36	36-45세	남자	-	대졸	없음	남자(2, 3세)	6, 14개월	없음
	07	1.32	36-45세	여자	있음	고졸	있음	남자(7세)	5개월	있음
	09	.83	36-45세	여자	있음	대졸	없음	남자(2세)	24개월	있음
	16	.75	46-55세	남자	있음	대졸	있음	남자(4세)	4개월	없음
2 (N=7)	10	1.29	36-45세	남자	있음	대졸	있음	남자(2세)	12개월	있음
	04	1.28	36-45세	여자	있음	고졸	있음	남자(7세)	12개월	없음
	15	1.22	46-55세	남자	있음	대졸	있음	남자(3세)	9개월	모름
	14	1.15	46-55세	여자	있음	대졸	있음	남자(3세)	9개월	없음
	11	1.09	36-45세	여자	있음	고졸	없음	남자(2세)	12개월	있음
	20	.57	46-55세	여자	있음	대졸	있음	여자(6세)	12개월	없음
	01	.54	36-45세	여자	있음	고졸	없음	남자(3세)	15개월	없음
3 (N=8)	13	1.88	46-55세	여자	있음	고졸	있음	남자(7세)	22개월	없음
	05	1.49	46-55세	남자	있음	고졸	있음	남자(2세) 여자(7세)	3, 8개월	없음
	02	1.12	36-45세	여자	-	대졸	없음	남자(2, 3세)	6, 14개월	없음
	19	1.05	46-55세	여자	있음	고졸	있음	남자(6, 9세)	6, 19개월	없음
	12	.88	46-55세	남자	있음	대학원졸	있음	남자(7세)	22개월	없음
	18	.71	46-55세	여자	있음	고졸	있음	남자(4세)	4개월	없음
	08	.60	36-45세	여자	있음	고졸	있음	남자(3세)	2개월	없음
	17	.39	56-65세	남자	있음	대졸	있음	남자(6, 9세)	6, 19개월	없음

있는 상황에서 입양을 하였으며, 28.6%는 한 명 이상의 입양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자녀의 성별은 대부분(89%)이 남아였으며, 입양당시 자녀의 평균 연령은 11.3개월, 조사 당시 자녀의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요인가중치는 <표 1>과 같다.

3. Q-분류과정(Q-sorting)

Q-표본을 분류하는 과정을 Q-sorting이라 한다. 연구자는 분류의 편의를 위해 Q-표본을 카드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의 사정상분포(quasi normal distribution)형태로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즉 연구대상은 카드에 적힌 문항을 읽고 입양과 관련하여 자신이 경험한 갈등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9점("매우 그렇다")까지 미리 정해진 매수대로 카드를 분류하였다. 카드의 분류가 끝난 후 양끝의 5매의 카드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연구대상이 직접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Q-분류과정 중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일대일 면담하고 그 결과를 추가로 기록하였다.

4. 자료의 처리

자료 수집이 끝난 후 Q-표본의 각 문항에 1점~9점까지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문항 순서대로 코딩하여 QUANL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Eigenvalues 1.00을 기준으로 Principle Factor Analysis와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위해 연구대상이 작성한 기록지와 연구자가 작성한 면담자료 등의 기술 자료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Q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Q-표본을 유사한 방식으로 분류한 연구대상의 조합을 유형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두 세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각 유형별 Eigenvalue는 제 1유형이 8.76, 제 2유형이 1.43, 제 3유형이 1.25였고, 세 유형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42%였다.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가중치가 높아 각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 Q-분류과정과 면담과정에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이 직접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표준점수가 ± 1.00 이상인 항목들을 추출하여 다른 유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타 유형과 비교하여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문항들을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의 독특한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1. 제 1유형: 자연스러운 가족관계 구축형

1유형에 속하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타 유형과 달리 남녀의 성비가 2 : 1로 남성이 많았으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향후 입양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 유형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고", "특별대우 받고 싶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입양사실을 알릴 필요도 못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입양을 결정할 당시에 "입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선택한 후에는 결정에 후회하지 않으며", "완전히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입양 후 "오히려 아이로 인해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부간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녀와 사랑의 교감을 통해 가족애가

〈표 2〉 제 1유형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문항

Q-표본	Z-점수
28.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필요하다.	2.03
26. 입양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일 뿐인데 지나치게 특별한 취급은 받고 싶지 않다.	1.83
34. 아이 키우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1.56
12.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전과 후의 적응 및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1.45
14. 입양할 때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좋다.	1.41
06. 입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1.30
22. 입양 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스러운 때가 많았다.	1.13
07. 입양아를 호적에 친자로 올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07
21. 장애아를 입양 할 생각은 없다.	1.02
30. 입양에 대한 자신감, 신념, 힘이 없어진다.	-1.12
40.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이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힘들었다.	-1.32
31. 남들이 입양한 아이라 저렇게 키운다고 할까봐 조심스러웠다.	-1.37
29. 아이에 대한 과보호나 집착이 지나친 것 같다.	-1.38
37. 의식적으로 가정이나 아이를 미화시키려하고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1.40
08. 아이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잦고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1.49
24.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어서 과양하고 싶은 마음이다.	-1.63

두터워 졌음”을 경험하였다. “나는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고”, “고통 없이 낳아 아이에게 더 정이 가고 사랑스럽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많고”, “특히 지금은 아이가 어리지만,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힘든 일이 생길까봐” 미리 염려하였다. 따라서 “입양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통해 아이 양육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다.

2. 제 2유형 : 현실적 대안 모색형

이 유형을 구성하는 연구대상은 여성이 5 : 2

〈표 3〉 타 유형과 비교하여 1유형이 높거나 낮게 동의한 문항

Q-표본	Z 점수	평균 Z점수	차이
제 1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문항			
06. 입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1.30	-.61	1.90
07. 입양아를 호적에 친자로 올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07	-.12	1.19
22. 입양 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스러운 때가 많았다.	1.13	.10	1.03
03. 입양할 때 아이의 성별, 혈액형,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따졌다.	-.37	-1.32	.95
제 1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부정적으로 동의한 문항			
40.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이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힘들었다.	-1.32	-.28	-1.03
31. 남들이 입양한 아이라 저렇게 키운다고 할까봐 조심스러웠다.	-1.37	-.34	-1.04
32. 부부 또는 배우자가 지나치게 아이를 예뻐하는 것이 문제다.	-.80	.78	-1.58
29. 아이에 대한 과보호나 집착이 지나친 것 같다.	-1.38	.23	-1.61

〈표 4〉 제 2유형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문항

Q-표본	Z-점수
28.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필요하다.	1.83
34. 아이 키우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1.79
21. 장애아를 입양 할 생각은 없다.	1.71
12.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전과 후의 적응 및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1.69
26. 입양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일 뿐인데 지나치게 특별한 취급은 받고 싶지 않다.	1.60
01. 불임으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친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1.23
14. 입양할 때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좋다.	1.07
05. 입양관련 연구, 자료, 서적이 부족해서 적절한 도움을 못 받는다.	1.05
08. 아이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잦고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1.07
23.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에게 입양사실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다.	-1.39
15. 입양 후 아이의 적응상의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었다.	-1.39
16. 내가 한 아이를 책임지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다.	-1.45
10. 내 자식처럼 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1.50
33. 아이를 내 자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1.98

의 비율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구대상 모두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자녀를 입양하였고, 2명을 제외하고 향후 입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장애아를 입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유형과 마찬가지로

지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입양문화의 활성화”와 “인식의 변화”,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국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 유형은 “결혼 전부터 입양에

〈표 5〉 타 유형과 비교하여 2유형이 높거나 낮게 동의한 문항

Q-표본	Z 점수	평균 Z점수	차이
제 2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문항			
01. 불임으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친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1.23	-.33	1.56
31. 남들이 입양한 아이라 저렇게 키운다고 할까봐 조심스러웠다.	.04	-1.04	1.08
39. 친자와 입양아를 함께 키우면 두 자녀 간에 싸움과 갈등이 심하다.	.21	-.83	1.04
21. 장애아를 입양할 생각은 없다.	1.71	.67	1.04
제 2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부정적으로 동의한 문항			
17.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이 또래의 다른 아이와 달라서 걱정했다.	-.69	.38	-1.06
06. 입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70	.39	-1.09
35. 입양 후 신앙생활을 하거나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한 적이 있다.	-.41	.71	-1.12
22. 입양 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걱정스러운 때가 많았다.	-.56	.95	-1.51
11.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양이라는 사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두렵다.	-.43	1.16	-1.59
15. 입양 후 아이의 적응상의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었다.	-1.39	.90	-2.29

대해 생각했었고”, “미리 계획했던 일이며”, “기도하면서 충분히 준비해서”, 그리고 “온 가족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일이라” 입양을 결정하는데 큰 갈등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아이와 양부모가 서로에게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입양시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했으나, 친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이로 인한 문제를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입양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기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친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아이가 나중에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미리 대비하며”, “입양문제를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3. 제 3유형 : 사회·정서적 지지 추구형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대상은 향후 입양계획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양을 결정하였으며, 한 명

이상의 입양자녀를 둔 경우가 전체의 50%였다. 타 유형과 비교하여 입양자녀의 현재 평균연령이 5.4세로 높았는데, 이 유형의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과 양육방식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이 많지만” “아이에게 지나친 애정과 집착을 보이는” 등 “부모로서 양육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이 유형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입양가정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인데, “동병상련이라 여럿이 모이면 힘도 커질 것 같고”, “입양 전 준비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입양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유형의 고민거리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입양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아이의 행동이 남다르고”, “발달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유형은 “자식을 선택해서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혈액형이나 성별, 장애유무 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부모로

〈표 6〉 제 3유형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문항

Q-표본	Z-점수
34. 아이 키우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1.73
11.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양이라는 사실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두렵다.	1.59
12.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전과 후 적응 및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1.47
15. 입양 후 아이의 적응상의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었다.	1.46
28.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필요하다.	1.34
14. 입양할 때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좋다.	1.13
26. 입양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일 뿐인데 지나치게 특별한 취급은 받고 싶지 않다.	1.07
23.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에게 입양사실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다.	-1.22
02. 친구나 주변사람과 아이에 대한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없었다.	-1.36
33. 아이를 내 자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1.38
10. 내 자식처럼 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1.45
24.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다.	-1.53
08. 아이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잦고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1.78
03. 입양할 때 아이의 성별, 혈액형,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따졌다.	-1.99

〈표 7〉 타 유형과 비교하여 3유형이 높거나 낮게 동의한 문항

Q-표본	Z 점수	평균 Z점수	차이
제 3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문항			
15. 입양 후 아이의 적응상의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었다.	1.46	-.53	1.99
11.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양이라는 사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두렵다.	1.59	.15	1.45
29. 아이에 대한 과보호나 집착이 지나친 것 같다.	.50	-.71	1.20
제 3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부정적으로 동의한 문항			
21. 장애아를 입양할 생각은 없다.	.33	1.36	-1.03
03. 입양할 때 아이의 성별, 혈액형,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따졌다.	-1.99	-.51	-1.48

서”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데” “남들은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 “남들의 시선이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다며 “다양성이 인정되어 입양에 대해 더 이상 특별한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반면 입양한 자녀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양육하는 것,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의 부모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4. 공통된 의견

모든 유형의 입양가정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자조모임 및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입양과 관련하여 부모가 경험하는 갈등의

〈표 8〉 모든 유형에서 긍정적·부정적 동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 문항

Q-표본	Z-점수
28.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필요하다.	1.73
34. 아이 키우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1.69
12.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전과 후의 적응 및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1.54
26. 입양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일 뿐인데 지나치게 특별한 취급은 받고 싶지 않다.	1.50
14. 입양할 때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좋다.	1.20
16. 내가 한 아이를 책임지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다.	-1.00
23.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에게 입양사실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	-1.03
10. 내 자식처럼 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1.28
24.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어서 파양하고 싶은 마음이다.	-1.36
33. 아이를 내 자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1.45
08. 아이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잦고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1.45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공개입양 가정은 아직까지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입양사실을 공개하였으며, 대개 영유아기의 어린 입양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동질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공개입양을 선택한 1세대로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개입양과 관련한 공통적인 갈등요인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부족하며, 입양가정을 위한 자조모임과 입양전후의 적응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특별대우가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범한 부모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 개개인이 경험하는 갈등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7쌍의 부부 중 5쌍이 동일한 유형에 분류되었고, 나머지 2쌍의 경우는 남편은 제 1유형에, 아내는 제 3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에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별차이 이외의 기타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과 이상적 양육행동에 관한 지각차이를 조사한 김민정(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부간에 신념이나 행동에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유형별 특성과 입양상담에서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유형인 “자연스러운 가족관계 구축형”은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했으나 입양 후에는 선택에 만족하고 가족애를 새롭게 경험하는 유형이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입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입양할 때 아이의 성별과 혈액형, 건강상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입양

이 신화와 비밀, 매체의 과대선전 등으로 둘러싸인 복잡하고 정서적인 주제이므로 입양부모는 독특한 심리적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Bordo, 2005; Sharkey, 1998). 입양 전 시기의 갈등은 주로 입양결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즉 불임과 생물학적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상실감을 겪고, 입양 결정에 따른 각종 평가와 관련된 불안, 입양이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Frasch & Brooks, 2003). 권지성(2003)의 연구결과 국내 공개입양가정 또한 입양결정과 더불어 공식적인 입양절차, 법적인 사후관리과정, 상호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입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입양절차를 정립하고 서류의 간소화와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정맹진, 2002).

특히 1유형에 속하는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를 친자로 호적에 올릴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는데, 합법적인 입적절차에 따르면 입양아가 호적에 양자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밀입양을 원하는 가정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며 공개입양가정의 부모에게는 아동에 대한 미안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권지성, 2003). 입양아를 친자로 양육하고 싶어 하는 입양부모는 신생아를 입양하면서 혈액형이 양부모와 일치하기를 원하며, 입양아동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성별과 신체적 건강, 연령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숙, 2003; 이정안, 2003; 정맹진, 2002; 최진희, 2003). 1유형의 경우도 입양아의 성별과 혈액형, 건강상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아를 입양함으로써 성별에서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1유형의 입양부모는 입양 후 아이로 인해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부부간의 정이 깊어

지며, 부모자녀관계를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에 큰 만족감과 기쁨을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입양으로 인해 새롭게 가족이 창출되는 경험을 하는 입양가정에서는 자녀를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감과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면서 부부사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맞는다(현태옥, 2004). 즉 한 인간으로서 사랑과 존중과 양육을 받아야하는 존재로 아이를 인식하면서 아이와 일체감을 이루는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다(Bordo, 2005; Jordon, 1995).

1유형과 달리 “현실적 대안 모색형”인 2유형에 속하는 입양부모들은 오래전부터 입양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입양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친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양을 결정하였으며, 친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입양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비입양부모들 중 상당수는 오랜 불임과 불임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 대안으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권지성, 2003; 정순란, 2005). 실제 불임여성의 스트레스 정도와 입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부 모두 불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불임치료에 실패했을 경우 입양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안, 2003). 따라서 불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입양을 차선책으로 수용하는 과정에 입양관련 실무자들의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며, 불임에 관한 의학적 정보나 상담 내용을 포함한 입양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권지성, 2003; 최진희, 2003). 타 유형과 비교하여 제 2유형의 부모들은 장애아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 중

장애아동이 53.8%인데 비해 국내 입양된 장애아는 1%에 불과했는데(정순란, 2005), 이와 같이 장애아 입양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아의 양육과 교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부담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 및 시설의 미비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서경숙, 2003; 정순란, 2005). Reilly와 Platz(2003)는 입양아의 장애와 행동문제가 입양부모의 양육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입양가정이 입양 후 형식적, 비형식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양 후 서비스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애아 입양 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의료, 교육, 주택, 세제 등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에서 장애아 입양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서경숙, 2003; 정맹진, 2002; 최진희, 2003).

제 2유형에 속하는 입양부모들은 타 유형보다 입양아와 친자와의 갈등을 걱정하고, 입양아 양육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자가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친자가 없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과 비교하여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있다(Barth & Brooks, 1997). 또한 친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입양할 경우 자녀간의 갈등이나 입양아를 돌보는 과정에서의 책임소재에 당혹감을 경험하기도 한다(현태옥, 2004). 특히 입양아의 양육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친생자녀의 양육에 비해 입양아 양육에 대한 역할모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한동수, 2001).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O'Brien 등(2003)은 비입양가정과 비교하여 입양가정의 부모들이 부모 됨에 더 큰 만족감을 보이고 양육에 있어서도 더 많은 긍정적 기대감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입

양모는 입양부에 비해 양육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입양모에 비해서는 양육 불확신(parenting doubts)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한 입양부모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주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생부모를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형용사로 “진짜, 친, 자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대조적으로 입양부모는 “가짜, 인위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람들은 무심코 입양아의 “진짜 엄마(real mother)”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입양부모를 묘사한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생부모의 무능력과 무의지를 대신 배워주는 역할로 사회적으로 인식될 때 입양부모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다(현대옥, 2004; Jordon, 1995; Smith, 2001).

입양아를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는 지지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입양부모가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상실감과 불안, 그리고 부모로서의 부적절감 등을 다룰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권지성, 2003). 국내 입양부모들은 입양부모 자조모임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였는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역할수행 자신감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현선, 2001). 또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입양모가 입양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양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입양인의 자아정체감과 가족적응력을 증진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졌다(이미선, 2001; 한동수, 2001). 특히 본 연구의 제 3유형에 속하는 입양부모들은 이러한 지지모임이 입양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지적하여 “사회·정서적지지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하고 자녀의 현재 발달상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일반적으로 Q 방법론의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유형의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양육방식에서 보이는 갈등이 타 유형에 비해 자녀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개입양 가정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권지성, 2003).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이의 입양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것을 권유하는데, 입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유아기부터 반복되는 입양이야기는 나중에 아이가 받을 충격을 완화해준다고 믿는다(배태순, 2000; Miles, 1999).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조사한 연구의 결과, 입양에 대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친부모에 대한 환상이 클수록 입양인의 적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선, 2001). 반면 개방적인 환경에서 입양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가정에서 입양아는 자신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 영속되었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음을 인식한다(O'Brien & Zamostny, 2003; Sharkey, 1998). 입양부모가 수태와 임신, 그리고 입양에 관한 아이의 반복되는 질문과 정서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데 입양에 관한 진실을 담은 좋은 책들을 활용할 것이 추천된다(Miles, 1999; Sharkey, 1998).

한편 입양부모의 스트레스를 예견하는 아동변인 중의 하나가 바로 행동문제이다. 입양부모는 입양아에게 임상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대옥, 2004; O'Brien & Zamostny, 2003).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입양아가 학령전기에 있을 경우 관심의

초점은 발달상의 문제와 입양적응,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의 갈등에 놓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의 근원이 임상적 개입을 요하는 특정 심리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Kim, 1993). “입양아동신드롬(The adopted child syndrome)”은 David Kirschner가 1984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입양아가 많이 의뢰되는 양상을 관찰한 결과로부터 유래되었다. 즉 입양아가 보이는 환상에의 과도한 몰두, 학습문제, 충동통제결여, 절도, 병리적 거짓말, 권위에 대한 도전, 가출 등과 같은 행동문제가 친부모에 대한 환상, 유기, 정체감형성의 어려움과 같은 입양과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과 관계가 있다는 가정이다(Smith, 2001). 공개입양 가정의 어머니 11명을 대상으로 양육체험연구를 수행한 현태옥(2004)의 연구에서도 생후 6개월 이상의 연장아를 입양했을 때 애착문제와 행동장애, 섭식장애, 정서장애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입양이라는 지위가 행동문제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일화와 경험적 현상에 근거한 자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행동문제를 갖는 입양아들이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Kim, 1993; Smith, 2001). 입양관련 연구에 제기되는 방법론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입양가정이 전통적인 가정은 당면하지 않을 편견과 낙인에 맞서야하고, 입양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치료적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입양가정을 위해 상담심리학자들은 면담자료와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입양가정의 요구에 맞는 집중적인 치료 또는 교육적·지지적 개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O'Brien &

Zamostny, 2003).

지금까지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가 경험하는 갈등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공개입양 가정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으로 인해 그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양상도 매우 유사한 주관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수의 공개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로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도 발견하였다. 공개입양 가정이 경험하는 갈등에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고 공개입양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와 개인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사회 입양가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선진입양문화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향후 공개입양 가정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하면 입양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갈등과 적응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미향(2002). 자폐아 어머니의 심리적응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6), 117-131.
- 권지성(2003). “공개입양 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미디어다음(2004. 8. 26.). “독일 입양아이 1명당 입양 희망 부모 14쌍”.
- 김민정(2005).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실제 양육 행동과 이상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김분한(2004). 간호대학 4학년의 직업가치관. **주관성연구**, 9, 159-175.
- 김정훈(1997). TV 기업광고의 효과연구. **주관성연구**,

- 2, 34-57.
- 김준희(1998). TV 드라마 수용자의 시청행위 연구. **주관성연구**, 3, 62-82.
- 김홍규(199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언론학논선**, 7, 20-57.
- 배태순(2000).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의 뿌리추구 욕구에 대한 이해.”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6(1), 31-48.
- 서경숙(2003). “전라북도 주민의 입양에 대한 태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숙(1997).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 **주관성연구**, 2, 5-33.
- 이경안(2003). “불임여성의 스트레스 정도와 입양인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2001). “해외 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여진(2004). “아토피 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애착행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규용(2002).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센터**, 15(2), 107-134.
- 윤은자(1998).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연구. **주관성연구**, 3, 167-191.
- 윤현선(2001). “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수행 자신감, 가족적응력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진환·김분한(2004). 중년여성의 신체상에 관한 주관성연구. **주관성연구**, 9, 76-191.
- 임영순(2004). 뇌손상 장기입원환자 부양가족의 태도 유형. **주관성연구**, 9, 134-157.
- 장정미(1997). 비만인의 체중조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관성연구**, 2, 58-79.
- 정명진(2002). “국내 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란(2005). “국내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희(2003). “국내 입양 서비스 실패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동수(2001). “입양아의 입양당시 연령, 양어머니의 양육기간 및 역할 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태옥(2004). “공개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esman, A., & Adamec, C.(2004). *Parenting your adopted child : A positive approach to building a strong family*. NY : McGraw-Hill.
- Barth, R. P., & Brooks, D.(1997).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tructure and size and adoption outcome.” *Adoption Quarterly*, 1, 29-56.
- Bordo, S.(2005). Adoption. *Hypatia*, 20(1), 203-236.
- Chisholm, P.(1997). Mother and child reunion : birth parents and adoptees push for more openness. *Maclean's* 110(21), 54-56.
- Frasch, K. M., & Brooks, D.(2003). Normative development in transracial adoptive families : an integration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Families in Society*, 84(2), 201-212.
- Jordon, L.(1995). Becoming an adoptive family. *Parents*, 70, 129-133.
- Kim, W. J.(1993). Adjustments of korean children adopted by american and european familie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2(5), 621-630.
- Miles, K.(1999). How to tell your child she's adopted. *Parenting*, 13(7), 219-220.
- O'Brien, K. M., & Zamostny, K. P.(2003). Understanding adoptive families : An integrativ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6), 679-710.
- Reilly, T., & Platz, L.(2003).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families who adopt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An empiric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5(10), 781-803.

Sharkey, P. B.(1998). Being adopted : Books to help children understand. *Emergency Librarian*, 25(4), 8-10.

Sullivan, R., & Lathrop, E.(2004). Openness in adoption : Retrospective lessons and prospective cho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393-411.

Smith, J.(2001). The adopted child syndrome :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Families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2(5), 491-497.

2006년 2월 28일 투고 : 2006년 5월 12일 채택

〈부록〉 Q-표본 및 각 유형별 Z-점수

Q-표본	각 유형별 Z-점수		
	1유형	2유형	3유형
01. 불임으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친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0.5	1.2	-0.2
02. 친구나 주변사람과 아이에 대한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없다.	-0.2	-0.5	-1.4
03. 입양할 때 아이의 성별, 혈액형,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따졌다.	-0.4	-0.7	-2.0
04.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역할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0.4	0.8	0.4
05. 입양관련 연구, 자료, 서적이 부족해서 적절한 도움을 못 받는다.	0.9	1.0	0.6
06. 입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1.3	-0.7	-0.5
07. 입양아를 호적에 친자로 올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1	-0.1	-0.2
08. 아이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잦고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1.5	-1.1	-1.8
09. 아이에게 언제, 어떻게 입양사실을 알려야할지 모르겠다.	0.6	0.8	0.2
10. 내 자식처럼 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0.9	-1.5	-1.5
11.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양아라는 사실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두렵다.	0.7	-0.4	1.6
12.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전과 후 적응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1.5	1.7	1.5
13. 주변사람들이 아이에게 먼저 입양사실을 말할까봐 걱정이다.	-0.0	0.7	0.6
14. 입양할 때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좋다.	1.4	1.1	1.1
15. 입양 후 아이의 적응상의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다.	0.3	-1.4	1.5
16. 내가 한 아이를 책임지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다.	-0.7	-1.5	-0.9
17.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이 또래의 보통아이와 달라서 걱정이다.	0.1	-0.7	0.6
18. 아이를 하나 이상 입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0.1	-0.9	-0.5
19.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다.	0.1	-0.0	0.7
20. 나중에라도 생모가 나타나면, 또는 아이가 친부모를 찾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다.	-0.6	-0.1	-0.5
21. 장애아를 입양할 생각은 없다.	1.0	1.7	0.3
22. 입양 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걱정스러운 때가 많다.	1.1	-0.6	0.8
23.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에게 입양사실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	-0.5	-1.4	-1.2
24.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어서 파양하고 싶은 마음이다.	-1.6	-0.9	-1.5
25. 공개입양이 항상 최선은 아닌 것 같다.	0.2	0.6	-0.2
26. 입양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일 뿐인데, 지나치게 특별한 취급은 받고 싶지 않다.	1.8	1.6	1.1
27.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0.6	0.5	-0.3
28.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필요하다.	2.0	1.8	1.3
29. 아이에 대한 과보호나 집착이 지나친 것 같다.	-1.4	-0.0	0.5
30. 입양에 대한 자신감, 신념, 힘이 없어진다.	-1.1	-0.8	-0.9
31. 남들이 입양한 아이라 저렇게 키운다고 할까봐 조심스럽다.	-1.4	0.0	-0.7
32. 부부, 또는 배우자가 지나치게 아이를 예뻐하는 것이 문제다.	-0.8	0.7	0.9
33. 아이를 내 자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1.0	-2.0	-1.4
34. 아이 키우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1.6	1.8	1.7
35. 입양 후 신앙생활을 하거나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한 적이 있다.	0.5	-0.4	0.9
36. 아이에 대해 남들이 하는 말이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0.1	-0.4	0.4
37. 의식적으로 가정이나 아이를 미화시키려하고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1.4	-0.5	-0.5
38.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했다.	0.0	0.4	0.7
39. 친자와 입양아를 함께 키우면 두 자녀 간에 싸움과 갈등이 심하다.	-0.8	0.2	-0.9
40.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이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힘들다.	-1.3	-0.2	-0.4